

HBM4 키우고 40조 투자… SK하이닉스, AI 메모리 굳힌다

하반기 차세대 HBM 생산 본격 확대
핵심 고객 10여곳과 장기계약 완료
HBM4E 샘플 공급·후속 개발 속도
청주 M15X·용인 팹 투자 조기 집행
AI 확산에 D램·낸드 수요 성장 전망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해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양산을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한다. 핵심 고객과의 장기공급계약(LTA)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40조원 후반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는 29일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HBM4 생산 확대와 생산능력 확충, 장기 공급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매출 79조3187억원, 영업이익 60조542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7%, 557%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다. 대규모 영업외이익이 반영되며 순이익은 93조9226억원에 달했다. 투자자산 매각 수익과 평가이익 63조3000억원, 외화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관련 이익 1조1000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2분기 순영업외이익이 6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송현중 SK하이닉스 코퍼레이트센터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사장은 “2분기부터 HBM4양산 출하를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HBM 리더십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제품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4E를 상반기 중 주요 고객사에 샘플 공급했으며 기술 성숙도와 양산 안정성을 확보한 공정을 적용해 이후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는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원가 경쟁력, 성능을 바탕으로 HBM 시장 우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I 메모리 시장 성장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는 AI가 에이전트 형태로 진화하면서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고성능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까지 함께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AI 모델 고도화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개별 작업 비용은 낮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AI 서비스 확산과 사용자 증가로 전체 인프라 투자와 메모리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해 인

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에도 추가 메모리 공급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올해 D램 수요가 20% 중반, 낸드 수요는 10% 후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첨단 공정 난이도와 신규 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급 불균형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고객과의 장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핵심 고객을 포함한 10여개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LTA)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추가 고객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번 계약이 단순 물량 공급을 넘어 고객 기술 로드맵에 맞춘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과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계약 이행을 뒷받침하는 재무적 장치도 함께 반영해 공급 안정성과 투자 효

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규모를 40조원 후반 수준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청주 M15X 양산 일정을 앞당기고, 2027년초 용인 1기 팹 클린룸 가동 이후 생산능력을 조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첨단 패키징 공장 P&T7과 낸드 생산기지 M17,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고객 수요와 투자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 사장은 “향후 실제 팹 건설과 장비 투입, 생산능력 확대는 고객 수요의 가시성과 투자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성장 기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공급 대응력과 재무 건전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최대 실적에도 반도체주 추락 삼성·SK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두 회사 시총 한 달 새 1519조 감소
AI 투자 지속성·메모리 수요 우려
중국 노광기 국산화에 투자심리 위축
증권가 “급락은 심리적 요인이 커”

1519조원. 지난 한달 새 증시 폭락으로 증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 총액이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시장 우려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며 국내 대장주인 두 회사의 주가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29일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4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33.3% 하향 조정했다. 투자이견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업종 전반의 평가가치 하락을 반영해 목표 배수를 낮췄다.

김영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낸드 계약가격 하향 가능성에 따른 주가 조정은 일단락됐지만 중국의 노광기 국산화가 이슈가 이어졌다”며 “업계 전반의 밸류에이션 조정이 불가피해 목표주가를 낮췄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목표가 하향이 실적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2028년까지 실적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목표 배수만 하향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가 가운데 처음으로 SK하이닉스 매수 의견을 철회했던 BNK투자증권도 이날 목표주가를 185만원에서 148

만원으로 추가 하향하며 눈높이를 더 낮췄다.

앞서 키움증권도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43만원에서 39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박유와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는 그동안 주당순이익(EPS) 성장에 기반해 상승했지만 하반기에는 EPS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메모리 산업의 변화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완성품 업체들이 메모리 추가 구매에 보수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메모리와 중앙처리장치(CPU), 기판 등 부품 가격 상승으로 PC와 스마트폰 판매가격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시장 기대를 웃돌 가능성은 낮고, 3분기 EPS 역시 현재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주가급락이 실적보다 투자심리 악화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각각 3.7배와 3.8배까지 떨어졌으며 시장의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2027년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가장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면서도 “최근 주가 급락은 펀더멘털보다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KB금융그룹
국민의 자산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 MTS

가비마블
KB마블

금리때마다
물어날

투자실력부터 자산성장까지
시작은, KB마블로부터!

매일 아침 1분 정보
오늘의 콕

전문가의 투자 전략
PRIME CLUB

한 눈에 보는 ETF 흐름
ETF 인사이드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2277호(2026.05.14~2027.05.13)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주식 주식거래 시 수수료 (비대면계좌)는 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KB증권